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6월 21일(주일) 제1054호

2015 여름 아웃리치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해외 27개국 139개팀, 대청 54개 지역 80개 팀(6월 18일 기준)

2015 여름 아웃리치 주제는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다. 해외 27개국 139개팀, 대청 54개 지역 80개팀(6월 18일 기준)이 아웃리치를 떠난다.

올 여름 아웃리치에서도 복음 들고 산 넘고 바다 건너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활약이 눈부실 것으로 기대된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들이 대단하다.

차세대부터 성인까지, 국내는 물론 열방에서 복음을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가 벌어질 예정이다. 차세대 여름성경학교, 의료선교, 교회 개보수, 일손 돕기 등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천선교 본부와 안전관리본부위원회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웃리치를 다녀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과 15일에 아웃리치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식중독 예방, 지진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담은 수칙도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

건강하고 안전한 아웃리치를 위해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아웃리치 팀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방문지 특성 및 주의 사항 등을 사전에 익혀야 한다. 예방 접종도 반드시 해야 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대청 W공동체의 남아시아대국 아웃리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 부흥비전집회, 리더십 영성수련회 등
6월부터 11월까지 ... 발자취 되새기고, 향후 30년 준비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윤곽이 나왔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는 지나온 발자취를 되새기고,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행사를 연다.

포문은 건강한 교회 세미나가 연다.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외부 목회자 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는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새벽예배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가 영상으로 상영된다.

7월 29일 오전 10시30분에는 Acts29 비전발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식이 있다. 같은 날 저녁 7시30분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를 드린다.

9월 7일부터 28일까지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새벽기도회가 열린다. 모든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9월 말에는 온누리교회 30주년사가 발간될 예정이다.

10월 둘째 주에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의 정점을 찍는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부흥비전집회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저녁에만 열

린다. 9일에는 평화누리공원에서 리더십 영성수련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집회가 열린다.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비전도 이 집회에서 선포될 예정이다.

10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5년 이상 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초청 행사가 열린다. 해외 비전교회 목사들과 비전 위원들을 초청해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11월 3-6일에는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선교 열린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 김남원 부장

온누리선교재단, 방역작업 실시

온누리선교재단이 지난 18일 본당을 비롯한 교회 모든 예배공간을 소독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따른 성도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고, 쾌적한 예배공간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방역작업이었다. 온누리선교재단은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교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의 메르스 예방 및 대처 지침

- 1.체육대회,아유회 등 야외모임 당분간취소
- 2.메르스 발병 의심지역 순모임은 당분간취소
- 3.6월 성찬식은 쉽니다.
- 4.악수등 신체 접촉자제
- 5.손소독제 사용
- 6.발열,기침 등 감기증상 시 CGNTV로 예배
- 7.예배 중에도 마스크 착용 가능
- 8.예배 전후 창문 열어 예배 공간 환기
- 9.차세대 예배서 안전교육 실시
- 10.차세대 예배실 출입 전 손소독제로 소독

이번 주 마리아행전, 카운트다운 집회

마리아행전이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주제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카운트다운은 28일과 29일은 양재 온누리

교회, 28일은 장충산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문의: 마리아행전 02-3215-3355
카운트다운 02-3215-3761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나기 수칙

이천선교본부와 안전관리분과위원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나기 수칙을 발표했다. 이천선교본부는 본격적인 아웃리치 시즌을 앞두고 지난 5일(서빙고)과 15일(양재)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아웃리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관리분과위원회는 식중독 예방 수칙과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발표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여름나기 안전 수칙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정리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국내의 아웃리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 1) 최초 상황보고는 6하원칙(5W1H)에 따라 신속히 보고한다.
- 2) 상황발생시 보고체계를 일원화한다.
- 3) 개인적인 SNS나 개별기도 요청은 자제한다. 2, 3차 위기 증폭 제한
- 4) 인사사고의 경우 공동체 담당교역자를 통해 가족에게 연락 및 접촉해야 한다.

물놀이 안전 수칙

- 1) 물놀이가 허용되지 않은 곳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 2)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하지 않으면 근육 경련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 3) 팔다리에 물을 가볍게 적신 후 물에 들어간다.
- 4)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지난 후 물에 들어간다.
- 5) 음주 물놀이를 절대 하지 않는다.
- 6) 수영이 서툰 사람은 튜브 및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7) 혼자서 깊은 저수지나 호수에 가지 않는다.
- 8) 무리한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 9) 물먹이기 같은 장난은 삼간다.
- 10) 파도가 높을 때는 바다수영을 삼간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 행동 요령

- 1)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 2) 지진은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안전한 위치를 찾는다.
- 3)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한다.
- 4) 불이 났을 경우에는 주위의 도움을 청하고 소화기로 즉시 불을 끈다.
- 5) 책임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6) 좁은 길, 담 근처로 대피하지 말고 벽, 문기둥, 자판기 등은 넘어지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 7) 산이나 해안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없는 평지나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8) 지정된 장소로 걸어서 대피하고 집은 최대한 적게 챙겨 양팔이 자유롭게 한다.
- 9)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한 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먼저 구조한다.
- 10)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식중독 유의사항

- 1) 손은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까지 골고루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는다.
- 2)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가 85°C에서 1분 이상 조리한다.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는다.
- 3)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식중독 발생 신고 요령

- 1) 식중독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2)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해외 아웃리치에서 식중독 예방법

- 1) 해외에서는 가급적 물을 사먹는 것이 좋다.
- 2)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를 준비해 간다.
- 3) 소독제 제품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아웃리치 안전교육 강의 요약



김진대 사무총장(한국위기관리재단)

효율적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개인의 위기관리다. 개인이 문제가 없으면 단체나 국가에도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단체(교회)가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초동대응을 잘하고,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위기관리의 원리와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위기관리는 단순하지 않다. 삶의 모든 영역에 위기관리 원리가 적용된다. 해마다 해외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절도가 가장 많다. 그다음은 안전사고다. 사망사고, 행방불명, 강도, 납치, 폭행 등 종류도 다양하다.

안전사고는 국가별로 편차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유럽이,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의 범죄율이 높다. 자기가 가는 국가의 특성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재해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지역마다 자주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요인, 취약요인, 노출이 만나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위험을 줄이는 것은 각각의 요인들을 줄이는 것이다. 위험요인,

취약요인, 노출 문제 중 한 가지라도 해결하면 위험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내가 준비를 안 했는지 방심하면 그 요인들이 증가하면서 위험도 커진다.

네팔은 지진, 필리핀은 태풍에 취약하다. 지질학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취약요인을 줄여야 한다. 취약성을 줄인다는 것은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지만 지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다. 같은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도 네팔과 일본의 결과는 다르다.

위기관리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깨어있는 것이다. 현실적이든지 영적으로든 항상 사주경계를 해야 한다. 주변에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 수많은 위험요인들

속에서 깨어있어야만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둘째는 취약성을 가급적 감춰야 한다. 약점을 감춘다는 것은 공격하기 어려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나를 노리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일정과 동선은 극소수만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과 동선의 변화를 준다거나 반복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눈에 띄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된다. 드러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지 말아야 한다. 만약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면 자신의 능력과 신분, 재력 등을 가급적 숨겨야 한다.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위험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림의 조건

요한일서 1:5~10

“하나님과 사림의 조건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을 통해 용서와 정결함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믿음을 ‘사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사림, 성도들과의 사림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림과 성도들과의 수평적 사림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림이 없다면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이 거룩한 사림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거룩한 사림이 없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림이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사림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림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입니다. 사림이라는 단어에는 동행,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면 조심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림을 통해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과 사림을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말로는 하나님과 사귀고 싶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지여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원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이 차고, 뜨겁다는 것은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머무르는 걸까요.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사림을 의미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 ‘companion’, ‘동반자’라는 단어는 빵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먹는 교제와 사림을 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사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나타나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셔서 깊이 만나는 하나님보다 성경책 속에 가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면 성경책을 펴서 만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성경책을 닫아 가둡니다.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만나기 싫습니다. 일이 있느냐 없느냐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사림 때 진정한 우정이 싹트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기대하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림이 깊어집니다.

청교도 존 웨인은 1674년에 병이 들었을 때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죽은 후에는 유일한 친구가 될 것일세. 나는 다른 일에는 모두가 싫증이 되더라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에는 싫증나지 않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네.”

존 웨인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림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까 봐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곳으로 떠나라고 할까 봐 걱정됩니까.

하나님과 사림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사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사림을 가로막는 세 가지의 거짓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과 사림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위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림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6

절).

사도 요한은 거짓말이라는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백과 행함이 다른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입술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왕은 나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얼마나 다른지는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하나님과 사림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거짓말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면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림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사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사림을 갖지 못하는 까닭은 자기 위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선, 자기기만, 자기만족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자기기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8절).

죄 없다고 할 때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은 본성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자지른 잘못을 죄가 아니라 실수나 인간의 발달에 따르는 고통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팔라게우스라는 사람이 원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죄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바로 자기기만입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림을 가지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10절).

비슷한 단어이지만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시제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죄가 없다’는 표현은 부정과거형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헬라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육체를 떠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적 지식을 얻게 되면 깨달음을 얻는데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믿는 사고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번 용서를 받으면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지라도 충분히 용서받은 상태고,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회개했으니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죄와 구원의 관계를 혼동시켜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적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잘못된 교리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는 척하는 아이는 깨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고 있으면 깨울 텐데 자는 척하니 깨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림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하나님과 사림이 있다고 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척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림의 핵심은 정직입니다. 자기 위선과 자기기만과 자기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림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4-5절).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빛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보다 빛이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요한 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13면에 계속)



탈북자가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할 북한의 실정’

통일에 대한 생각 달라 ... 고위층은 현상태 유지, 중하층은 침공통일 원해
북한 주민 70% 남한 실정 잘 몰라, 매체 통해 제대로 알리는 것이 급선무

호국보훈의 달 기획 ‘왜 북음통일인가’

1. 통일한국은 ‘21세기 동방의 예루살렘’
2. 독일의 통일 사례로 비춰본 우리나라의 통일준비
3. 탈북자가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할 북한의 실정’
4. 북음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자세

슈마트 前 서독 총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2주 전 사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생전에 동·서독의 통일은 이룩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얼마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동·서독에게 갑자기 통일이 들이닥쳤다. 독일이 통일된 지 25년이 흘렀다. 통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독일은 지금까지도 동독과 서독 출신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다. 온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과 북한은 어떨까? 남북한으로 분단된 지 올해로 70년이 흘렀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알아야 한다. 지난해 탈북해 올해 4월 한국에 온 A씨를 만났다. 그에게서 북한의 실정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A씨의 요청으로 실명과 나이, 성별 등을 밝히지 않겠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탈북과정이 궁금합니다.

“세 번(2012년 두 차례, 2014년)에 걸쳐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가정 곤란(생계 곤란)이 탈북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복송되었고, 수감소를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감옥을 전전하고 구타와 열악한 처우로 병이 심해졌습니다. 당시 담당 보안소에서 혹시 내가 죽어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집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집에 온 다음날 세 번째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하고 중국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녹록치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연결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잡자리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치료도 해줬습니다.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천사와 다름없습니다.”

- 북한사람들이 탈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별로 이유가 다릅니다. 1994년 김일성이 죽기 전에 탈북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의도가 높았습니다. 국가 고위직에 있으면서 김일성 눈 밖에 나서 망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이후부터는 생존권을 위해서 탈북합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면서 굶어죽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식량사정이 곤란해지자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것입니다. 2005년 이후에는 먼저

탈북한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 브로커를 통해 탈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한국에 먼저 정착한 사람으로부터 소식과 정보를 얻고 탈북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층별로 정부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최고 위층은 철저하게 김정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입니다. 최하층 세력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격인자라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간층(간부, 법관, 경찰, 공무원 등) 사람들은 김정정은의 정치에 어느 정도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급은 줄어드는데 세 부담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은 없는데 바치라고만 하니 충성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큰 문제는 법관이나 경찰들이 범죄자들과 결탁해 부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약거래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마약밀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생산자, 장사꾼, 해외 판매상을 적발하고 처벌해야하는 법관(경찰)들이 범죄자들과 유착돼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압록강 지부와 두만강 지부, 함경북도 지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이쪽은 날씨가 춥고 내륙지역에 비해 정부의 원조가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나눠주는 구호물자도 함경북도에겐 오지 못합니다. 함경북도 사람들은 간부로 추천도 잘 안 됩니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후에 함경북도에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탈북을 가장 많이 합니다. 탈북자 중 절반 이상이 함경북

도 사람일 것입니다. 중국과 인접해 있는 지역적 영향도 클 것입니다. 중국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대 세습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 교육의 기본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김일성 부인) 3대 위인의 위대함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일명 ‘위대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3대 위인의 혁명 활동과 역사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주입시킵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승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합니다. 이런 사상 교육이 학교 교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사상 교육 점수가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나 조직에 나가도 사상 교육은 계속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20-30년씩 사상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김일성의 위대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상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세계정세를 모릅니다. 국가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사상 교육과 국가 통제가 3대 세습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간층과 최하위층은 침공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조가 줄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 그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어 세상의 흐름이나 남한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정보를 제한하거나

왜곡 보도를 자주합니다. 아마 북한 주민의 70%는 남한에 대해 잘 모를 겁니다. 오랜 기간 주입된 주체사상 교육의 영향도 큼니다. 주민들은 북한이 못 살게 된 이유를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침을 하려고 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 국방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문제에 눈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달픈 삶과 무지로 차라리 전쟁이 나길 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고위층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한 사회와 북한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길 능력도 없고, 전쟁을 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을 달래면서 자기들 정권 유지에만 애쓰고 있습니다.”

-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하나이기 때문에 둘 되면 살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통일은 자식이 부모를 찾고, 부모가 자식을 찾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상이나 물질, 돈, 욕심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못 사는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냐고 하는데 그런 틀린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훗날의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집안이기 때문에 합쳐 살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우상화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빵을 쥐놔야 의미가 없습니다. 유엔이나 한국의 대북지원 물자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위층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됩니다. 사



량을 담은 많은 물자들이 김정은 독재 유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빵과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북한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의 퍼주기보다, 한국의 실상을 다룬 다큐나 기

독영화와 같은 녹화물을 북한에 무상으로 보내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언론 보도를 제재하고, 외국방송 상영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 정치에는 무관심합니다. 불법이긴 해도 한국 녹화물(드라마, 가요 등)을 봅니다. 그런데 내용이 맨 사랑타령 밖에 없습니다. 불륜,

치정, 물질만능주의만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에 남한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북한에 구호물자를 보낸다면 아이들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고위층이 빼돌려도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머리 속에 뿌리 내린 위대성(주체 사상)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 받아들이는 게 빠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의 머리 속에 자유 의식과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고 심어줘야 합니다.

남한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신은미씨가 나와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정말 분했습니다. 그녀가 많은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적은 편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3만 명에 육박하는 탈북자들의 진심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탈북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은 멀어집니다. 서로 불신만 깊어지고, 절실함이 줄어들니다. 북한 사람들 뺨속깊이 박힌 주체사상을 대신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이지 않습니까?"



칼럼 전우택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한반도평화연구원)

통일은 크리스천들의 시대적 사명이다

나는 정신과 의사다. 오랫동안 북한과 탈북자를 연구해 왔다. 정신과 의사와 북한 연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 탈북자는 난민과 유사한 집단이다. 난민에 대한 생태적 연구 혹은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는 정신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고, 탈북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내가 처음 연구를 시작한 1993년 무렵만 해도 연간 탈북자가 10여 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1,300명이나 되었다. 현재 한국에 약 2만8천명의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다.

나는 북한과 탈북자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통일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과 분단과 통일이라는 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신앙은 신앙, 북한은 북한, 통일은 통일이라는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어느 시대고 그 땅에 태어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독특한 신앙적 관점과 결단 행위가 있다.

출애굽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그들의 신앙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바벨론 유수 때는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중요한 사건에 처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과 결단을 할 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통일에 대한 의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통일이 된 후에 생각하면 늦는다. 기쁨을 준비하지 않는 열 처녀와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13).

통일이 된 이후에 북한에서 할 사업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적절한 자세다.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교회는 북한선교학교, 하나공동체가 있어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선교학교와 같은 교육이나,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통일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했고, 일상화되었다. 일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다. 복음과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기관과 전혀 다른 논리와 신조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참 의미를 갖는다. 세속 단체와 차이가 없고, 물질주의에 사로

잡혀 있는 한국 교회는 결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복음에 대한 본질적 의미, 즉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봐야 한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진정한 북한 선교가 가능하다.

북한 사람들은 평생을 지배층에 의해 주체사상을 강요당하고 제대로 된 사회 교육을 받지 못했다. 주체사상을 외치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만 사영리를 설파해봤자 통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행동으로 따르는 삶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했듯, 북한 사람들에게는 북한 사람들처럼 접근하고 대해야 한다.

북한 선교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는 특수 선교다.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맨 마지막 방법이다. 북한에 대해 잘 모르면 뜨거운 마음으로 접근해봤자 순식간에 얼음처럼 변화되고 만다.

탈북자들과 북한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아무리 뜨거운 마음일지라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사랑꽃’ 피운다

남양주 여성사역 이웃사랑 실천 ... 경로원, 탈북자, 미혼모 섬기고, 전도도 앞장!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들의 이웃사랑 실천이 남다르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경로원, 탈북자, 미혼모들을 섬기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경로원 어르신들을 초청해 맞춤전도집회를 열었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선물하고 있다. 미혼모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도 한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남다른 이웃사랑 실천 비결이 무엇일까.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힘을 합친 시너지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누구보다 빨리 또 생생하게 이웃들의 필요를 세대별, 주제별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지역사회에 ‘사랑꽃’ 피우고 있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현장에 동행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학생들을 위해 영접기도하는 전도.



눈높이에 맞춰 전도하고 있는 모습.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밝고 젊다. 또 풍성하다. 30대부터 70대까지 은사에 맞게 사역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 양육의 장(場)이 펼쳐져 있다.

전도팀의 활약도 대단하다. 지난 3월 남양주 온누리전도스쿨 4기를 21명이 수료했다. 수료생 중 한명은 인도 선교사로 파송됐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성도, 팀을 만들어 경로당과 요양원으로 전도하러 가는 성도들도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전도팀은 매월 마지막 주 교회 앞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간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일명 ‘떡볶이 전도’다. 지난 17일에는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줄 시원한 팔빙수를 준비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주변에 있는 구리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간식도 먹고 예수도 영접하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예수를 영접한 학생들에게는 버려진 휴지 속대를 재활용 해

만든 연필꽂이를 선물했다. 전도팀의 열매는 새신자들이 교회로 발걸음 하는 것으로 익는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고등부에 등록한 학생도 있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더 깊이 심어주고, 권면하기도 한다. 전도팀은 학교 앞 뿐만 아니라 경로당도 방문한다. 시니어팀과 연합해 전도초청 잔치를 열기도 했다. 1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했다.

석재연 전도팀장은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어린이와 같이 낮아져 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혜로운 여성

탈북 청소년들의 어머니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우리들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안학교다. 남양주 온

누리교회 북한선교팀은 그곳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벌써 4년이나 됐다.

우리들학교에 보낼 밥과 반찬은 하루 전에 만든다. 한번은 북한에서 자주 먹는 인조고기를 만들었다. 인조고기는 두부콩에서 기름을 뽑고 남은 ‘대두박’으로 만든 음식이다. 인조고기를 건네받은 탈북 청소년들이 고향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좋은 이웃모빌은 한달에 한번 의정부 소재 미혼모 1차 시설을 찾아간다. 1차 시설은 미혼모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접 만날 수는 없다. 대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전달한다. 미혼모 대부분은 10대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김밥과 떡볶이다. 자비량으로 재료를 사서 시설 관계자까지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해간다. 김현실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는 “내 가정

내 자녀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여성”이라면서 “지혜로운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여성예배 여름특별집회〉

일시 : 7월1일~8월26일 매주(수) 오전 10:30

장소: 남양주 온누리교회 본당

7월 주제 : 생애주기별 교육

내용 : 100세 시대 신준년 이해, 사춘기 부모·사춘기 자녀 더불어 살기 등

8월 주제 :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 히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도

강사 : 안광국 목사, 김정숙 목사, 한은경 권사, 김기영 전도사, 김현실 목사

문의 : 031-565-9686

■ 남양주 온누리 전도스쿨 간증



/ 소덕진 성도(온누리 전도스쿨 4기)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전도스쿨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다. 지난해 순장아울리치에 함께 갔던 팀원이 여러 번 추천해 전도스쿨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등록과정부터 심상치 않았다. iSchool로 등록했는데 등록이 되지 않았고, 목회지원실에 찾아갔는데 신청서가 떨어졌다. 아무래도 신청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간사님께 말을 건넸는데 간사님이 신청서를 구해주었다. 그런데 등록자 부족으로 폐강 위기에 놓였다. 전도스쿨을 사랑하는 이들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개강하게 되었다.

개강 이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무릎 뼈가 골절돼 목발을 짚고 다녔다. 전도스쿨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가뻓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2주가 지났을까. 전도스쿨에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다. 앞차가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는 영적인 것이라 생각해 병원보다 전도스쿨에 먼저 갔다.

나는 열정적인 참여자는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강의를 들으며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가 섬기는 순에 배정된 노부부가 생각났다. 그 노부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부담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교회에 다녔지만 전도의 열정과 기술이 없던 내게 귀한 도구를 갖게 하셨다. 아직까지 그 노부부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문을 두드릴 것이다.

순종의 도구,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몇 주전 주일에 있었던 일이다. 아내는 6살 된 아들의 어린이집 동기 엄마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캠핑을 갔다.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찍 서둘렀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아이 엄마가 아내에게 꼭 예배에 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아내는 예배에 빠질 수 없다며 “여기서 다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모르지...”라고 이야기 했다. 이 때 불교신자였던 한 아이 엄마가 “10분 이내에 예배를 드리면 괜찮다”는 대답을 한 모양이다. 내가 돌아오니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내게 질문했다. “10분 안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5분 전도를 훈련 중인데

10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아이들이 가져온 도화지 한 장과 색연필을 준비했다. 마음으로 기도했다. 다행히 석재연 팀장님이 하루 전날 발표를 제안해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 준비시키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접기도는 입을 열기 어려울 것 같아 마음으로 따라하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지 주님께 물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한 기정을 위해 기도를 시키셨다.

생명을 구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는 우리의 입술이 없다면 누구를 통해 구원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순종의 도구로,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이래서 태교가 중요하다

임산부에게는 마음의 안정, 태아에게는 좋은 자극을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 뱃속부터 말씀 읽는 습관 길러줘야

“축하합니다. 7주 되셨네요.”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듣고 뿔 듯이 기뻐
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다.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까?”,
“태교는 어떻게 하지?”

평소 태교 일기, 바느질 태교, 클래식 태
교, 태담 등 여러 가지 태교방법을 알고 있
었다. 그런데 막상 닥치니 눈앞이 캄캄했
다. 크리스천 엄마로서 남들과 다른 태교
도 하고 싶었다. 기자와 같은 임산부들에
게 좋은 태교방법을 소개한다.

유대인 태교방법을 눈여겨보자!

임신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한 생
명이 탄생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임산부들은 걱정이 앞선다. 기쁨과 불안이
교차한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열 달 동안 어떻게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할지 염려되고 불안하다. 이
래서 태교가 중요하다. 태교는 임산부에게는 마음
의 안정을, 태아에게는 좋은 자극을 준다.

크리스천 임산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이다. 감미향 목사(서빙고 헬로맘)는 크리스천 임
산부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할 것”을 권면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꾸
준히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말씀으로 자란 자
녀는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태교가 중요하
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빙고 온누리교회 헬로
맘에서는 지난 12월부터 ‘해설과 함께하는 성경
암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태교를 매우 중시했다.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다산과 번성이다. 그
들은 ‘낫다 임신법(부부관계에 대한 계율)으로
계획적으로 임신하고, 토라 태교(말씀 태교)를 통

해 아이를 기다린다. 유대 여성들은 토라(특히 모
세오경)를 가장 완전한 책이라고 믿는다. 임신과
출산의 비밀을 알려주는 보물로 여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드시
고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듯이, 먼저 아이가 열
달 동안 머물게 될 자궁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
한다. 임신을 하면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는 태교,
성경 말씀을 수놓는 태교, 기도과 찬양 태교 등으
로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한다. 크리스천 임산부들은
유대인들의 태교방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부부가 함께하는 '영적 태교'

태교는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다. 부부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
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임산부는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 때문에 힘들다.
출산에 대한 부담감까지 겹쳐 정서적으로 불안정
할 수밖에 없다. 남편은 아내의 이러한 변화를 고
려해 태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아

내가 힘을 얻는다.

부부가 함께하는 ‘영적 태교’가 좋다. <모태 크
리스천 스쿨>의 저자 가회숙 선교사는 “영적 태교
는 태아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전인격적인 교
육”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부부의 영적 생활이
태아의 영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
혔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지능적 발달뿐만 아니
라 태아의 영적 발달과 성품 계발을 위해서 영적
태교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온누리교회에는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이 있다. 서빙고와 양재에서 진행되는 헬로맘이
그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출산 전에는 성경적인 태
교와 관계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출산 후에는 영유아기 자녀 양육방법과 성
경적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지금 임신
중인 성도들에게 헬로맘 강의를 강력 추천한다.

말씀 태교, 영적 태교, 유대인 태교, 절대적
인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뱃속의 아이를 생
각하며 임산부가 고심하고, 선택한 태교라면 그
자체가 훌륭한 태교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임산부의 태교를 위한 추천도서

《토라 태교》 두란노/이영희/15,000원

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면서 성경 즉, 하나님
의 가르침에 따라 아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몸과 마
음을 준비하고, 고결하다 싶을 정도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태교하는 유대 부모들의 태교법을 소개한다.

《말씀 심는 엄마》 규장/백은실/9,000원

태교는 물론, 열 살이 될 때까지 말씀 암송과 가
정예배를 통해 자녀를 ‘하늘 자녀’로 키우는 방법
을 보여준다. <임송 여왕 엄마가 되는 37가지 방법>,
<꼬마 암송 왕이 되는 57가지 방법> 등을 실어 일상
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령 태교》 두란노/김창규/10,000원

성령 태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 성령 태교는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
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모로
서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자
녀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목회칼럼 감미향 목사(서빙고 헬로맘 담당)

아이와 함께 드리는 첫 예배를 준비하자

임신은 온 집안의 축제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에 주신 선물이다. 임신과 출산은 부부가 하
나 되어 이룬 사랑의 결실이지만 생명을 주신 생
명의 근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한다. 시편
130편 13절 말씀을 보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
를 조직하셨으며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나를 지
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
음받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
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되셨다.”

이사야 43장에는 “너를 창조하신 분 너를 만드
신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쓰여
있다.

부부는 아이가 이 땅에 오는 통로다. 우리의 생
명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

님이 우리에게 맡긴 생명이요, 우리는 청지기라
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태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
사에서부터 시작된다. 태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태중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하나
님이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그 어떤 태교보다 중요하다. 아빠가
아이와 임신한 아내를 위해 날마다 배에 손을 얹
고 기도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속삭일 때,
태중에 아이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
킨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 세상에 나가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산모도 그 기간
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다. 부부만 살던 삶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사

건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바뀌는 축복이다.

말은 마음에 담긴 것들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다. 짜증과 질타, 부정어를 쓰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한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축복이다. 지금 힘들지만 잘 살 수 있어 힘
내”라고 말하며 격려해야 한다.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해줘야 한다. 가정에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새 역사를 쓸 수 있다. 생명의 가
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
다는 것을 태중에 아이도 감지할 것이다.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임신 기간 중에 쿠티 말씀을 묵상
하거나 31장으로 이루어진 잠언을 날마다 읽으
면 말씀이 내면화된다.

임산부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그래
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출산 후 도움을 받을
곳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세속에 편승하지 않고, 기도로 아이를 기다
리고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좋다. 임산부들을 위한
‘출산예비학교’를 이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이다. 세상에 휘둘린 태교와 자녀 양육이 아니라
시간이 가도 문화와 상황이 바뀌어도, 진리에 기
초를 둔 교육이 필요하다.

진정한 안식과 평강은 하나님과 만날 때 이루어
진다. 임산부 내면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 있으면 태중에 아이도 동일한 상태가 된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은 산고의 고통이
따른다. 산모도 고통스럽지만 아이도 좁은
산도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나
산고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에 고통을 넘
어설 수 있다.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
자. 아이와 만났을 때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
사합니다”라고 고백하자. 그렇게 그 아이와 첫 예
배를 드리자.

물 떠온 하인만 안다 ‘샤이닝 글로리’

최희령, 정재민 집사 부부, 정미정 자매 ... 샤이닝 글로리를 말하다

Shining Glory

온누리교회 대표 쉼과 회복 프로그램 ‘샤이닝 글로리(Shining Glory)’는 모든 것이 바공개다. 절절한 간증도, 카리큘럼도 공개된 적이 없다.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들은 입장한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샤이닝 글로리에 참가했던 성도들은 아구동성으로 “온전한 섬김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쉼을 얻었다며 기뻐한다.

샤이닝 글로리는 참가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났다는 존귀함을 느끼고,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샤이닝 글로리에 참가했다가 지금은 샤이닝의 봉사자가 된 최희령, 정재민 집사 부부, 정미정 자매를 만났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샤이닝 글로리 후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마냥 은혜 누리는 천국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교회에 워낙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굳이 그것까지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샤이닝 글로리에 발을 들인 순간 느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몰랐어요. 샤이닝 글로리는 마냥 은혜를 누리는 천국이었다고요.”

이정연 성도는 55기 샤이닝 글로리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지 샤이닝 글로리를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

샤이닝 글로리에 가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다. 신앙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녀는 “용기와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민할 것 없이 샤이닝 글로리에 참가하라”고 권면했다.

그녀는 샤이닝 글로리에서 친구도 만나고, 방 안도 선물 받았다.

“비슷한 또래 성도들끼리 3박4일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저를 이끌어주신 조장님과 아직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요. 그곳에서 기도하다 방 안도 선물 받았어요. 샤이닝 글로리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예요. 더 많은 성도들이 저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치유와 영적 리더 세우는 프로그램

샤이닝 글로리는 1996년 시작됐다. 영적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적리더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샤이닝 글로리가 만들어졌다. 전주비전대학과 추암하우스 등 공기 좋은 곳에서 진행된 샤이닝 글로리에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녀갔다. 세상에 둘도 없



66기 샤이닝 글로리 수료자들.

는 쉼과 회복을 경험했다.

샤이닝 글로리는 참가자들이 발을 닫고는 순간부터 퇴소하는 순간까지 수십 명의 스태프와 리더십, 목회자들이 한사람을 위해 헌신한다. 그 헌신적인 섬김이 지금까지 샤이닝 글로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샤이닝 글로리를 경험한 성도들은 다음번 샤이닝 글로리의 스태프로 섬기겠다고 헌신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스태프들의 섬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그 이유다. 그렇게 ‘샤이너(샤이닝 졸업자)’들이 스태프로 거듭나 또 다른 샤이너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최희령, 정재민 집사 부부(OCC 공동체)도 참가지에서 봉사자로 거듭났다. 이 부부는 2008년 밴쿠버 온누리교회에서 샤이닝 글로리를 수료했다. 2010년 잠시 한국에 들어온 부부는 친분이 있던 한 성도의 요청으로 샤이닝 글로리 스태프로 섬기게 되었다. 그들이 스태프 제안을 흔쾌히 허락한 이유는 샤이닝 글로리에서 받은 은혜를 차마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내 최희령 집사가 먼저 간식팀으로 섬겼다. 파트타임으로 아내를 돕던 남편 정재민 집사도 어느새 5박6일 동안 섬기는 스태프가 되었다. 지금은 샤이닝 글로리 조장으로 섬기고 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봉사를 하면서 얻는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남을 섬기면서 얻는 은혜 때문에 섬김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들은 2010년부터 꾸준히 샤이닝 글로리를 섬기고 있다. 그들은 샤이닝 글로리를 이렇

게 소개했다.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역은 많지만 샤이닝 글로리는 다릅니다. 샤이닝 글로리는 치유와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적리더를 세우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섬기는 것이 샤이닝 글로리의 별미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샤이닝 글로리에 꼭 한번 참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정미정 자매(4U 공동체)도 57기 참가지에서 봉사자로 거듭났다. 그녀는 청년부 목회자의 추천으로 샤이닝 글로리에 참가했다. 당시 4U 공동체 담당이던 박시형 목사가 그녀에게 지체들과 함께 샤이닝 글로리에 참석할 것을 독려했다.

“샤이닝 글로리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샤이닝 글로리에 참가하면서 나 위주로 살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으로 옮겨졌거든요. 나를 한없이 사랑해주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미정 자매는 샤이닝 글로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다고 한다. 특별한 주님의 사랑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경험을 잊지 못해 샤이닝 글로리 봉사자로 섬기고 있다. 그녀가 몇 년에 걸쳐 봉사를 지속할 수 있던 이유는 참가자들의 얼굴 표정 때문이다.

“봉사가 쉽지는 않아요. 힘들고 지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참가자들의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는 것,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녀는 샤이닝 글로리를 ‘희망’이라고 노래했다. 가끔 지칠 때면 ‘이제 봉사를 그만해야지’ 하다가도 참가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한다. 그 기대감이 그녀를 다시 샤이닝 글로리 봉사자로 부르는 원동력이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샤이닝 글로리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는 7월 12일(주일)부터는 ‘69기 샤이닝 글로리’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초대 받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샤이닝 글로리에 참가했던 이들의 말처럼 샤이닝 글로리는 꼭 한번 가봐야 한다. 그 이유는 물 떠온 하인만 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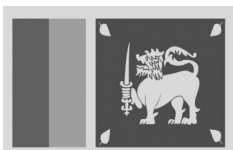
알림

<69기 샤이닝 글로리>

일정: 7월 12일(주일)~15일(수)
장소: 파주제자수양관
회비: 38만원
문의: 오기현 간사(02-3215-3726)

<샤이닝 글로리 봉사자 모임>

대상: 이전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 중 지원하신 분
일정: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역삼동 789-6 율네이션빌딩 3층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스리랑카 사람들의 생활

윤웅국 목사
(온누리M센터 스리랑카예배)

스리랑카의 식사문화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식사할 때 수저 대신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양손을 사용하되 주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왼손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의 주식은 쌀과 커리다. 나는 언어연수를 하던 중 머물던 현지인 집 가족들 덕분에 아파, 도세, 누들, 고투, 에그로티 등 평소엔 맛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었다. 이번 주에는 라자잉클 집에서 경험한 생활문화를 나누고자 한다.

스리랑카의 식사, 화장실, 조문 문화

스리랑카에서는 식사 전에 먼저 손 씻는 그릇(finger bowl)에 물을 가져다준다. 여기에서 식사할 손을 씻는 것이다. 이런 문화를 모르고 손 씻으라고 가져다준 물을 마신 적이 있다.

손을 씻은 후에는 자신의 빈 접시에 밥과 음식을 먹을 만큼 가져온 다음 그것을 손으로 비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조금 줬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약

간위로 밀듯이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는다.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처럼 밥을 먹을 때 한 음식에 여러 사람이 젓가락과 숟가락을 넣어먹는 것을 비위생적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손으로 먹는 것이 훨씬 위생적이라고 여긴다. 나는 2개월 동안 라자잉클 집에 머물면서 매일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다 먹고 난 다음에도 손 씻을 물을 준다. 식사의 마무리로 그 물에 손을 씻으면 된다.

스리랑카에서는 왼손으로 아이들 머리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마 화장실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자잉클의 집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었다. 휴지가 비싸기도 했고 아주 얇다. 품질도 좋지 않다. 화장실에는 조금 큰 물통에 물이 담겨 있다. 그 물통에 조그만 통이 하나 더 있다. 먼저 용변을 본 다음 조그만 통에 물을 담아서 용변을 처리한다. 화장지가 없기 때문에 물을 뿌리듯 하면서 왼손으로 동시에 용변을 처리하는 것이다.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화장지 없는 화장실 문화였다. 좀 더 좋은 화장실에는 물통 대신 물 뿌리는 호수(비데, bidet)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스리랑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오늘날의 비데를 사용하고 있다. 매일 이렇게 화장실에서 왼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엽다고 왼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머문 현지인 집 둘째 딸 하리스는 이십대 후반이라서 결혼적령기였다. 하루는 인티가 어떤 남자 사진을 가져왔다. 이 남자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별자리점(horoscope)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리

그들이 왼손을 쓰지 않는 이유



장례 조문을 하러 집에 모인 동네사람들.

랑카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별자리점을 본다. 나도 안산에서 스리랑카 사역을 하면서 스리랑카 형제들이 별자리점이 서로 안맞아서 헤어진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스리랑카에 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봤다.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별자리점이 안맞으면 결혼해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인데 아직도 이런 미신을 믿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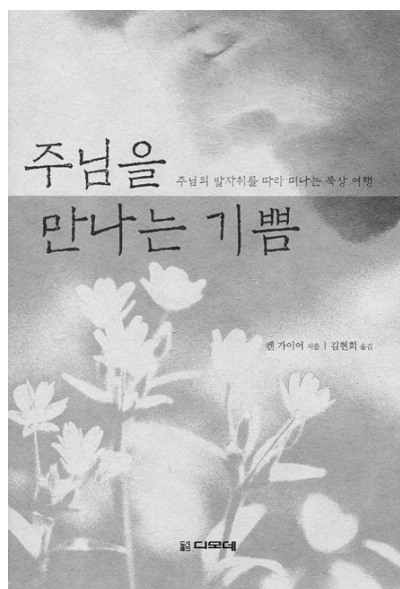
까웠다.

현지인 집에 머물던 2개월의 시간이 지날 무렵 강한 불교도이신 인티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스리랑카에서는 시신을 집안 거실에 모셔 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 얼굴을 보면서 조문하도록 한다. 10여 명의 스님이 와서 불교식 위로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내게 본국을 떠나 한국에 온 이주민 선교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목회칼럼 안광복 목사(서초B, 특초 담당)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만남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읽고

“그분은 적어도 이 지구 위에 발을 내딛고 걸은 가장 놀라운 분이셨다.”

이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깊이 있는

묵상과 탁월한 통찰력으로 인기가작 반열에 올라있는 켄 가이어(Ken Gire)의 저서다.

그는 〈영혼의 창〉이나 〈묵상하는 삶〉 등으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작가지만, 이 책 〈주님을 만나는 기쁨(Moments with the Savior)〉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지 않았다.

이 책은 서가에 꽂혀있는 여러 책 중에서 빛을 발하는 책이다. 책을 읽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분량에 아쉬움을 느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렇다. 적지 않은 분량(545페이지)이지만 페이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쉬워 아껴가며 읽는 특별한 책이다.

저자의 집필 의도는 아주 간명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그 특별한 순간들을 조명하고 있다. 그로 인해 독자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필 목적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주님과 만난 복음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주인공들의 벅찬 감동과 숨결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따뜻한 필체로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자의 탁월한 상상력과 섬세한 영적 감성은 독자들을 생생한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한다. 묵상하듯 책을 읽다보면 주님을 만나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각 장면이 끝날 때마다 저자는 그 내용을 토대로 소망과 다짐의 기도문을 기록했다. 그 기도의 언어와 내용 또한 아름답고 신실하기 그지없다.

번역자의 뛰어난 실력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번역한 김현희목사는 탈북신학교를 졸업하고 LA 근교에 있는 집그릇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다가 현재 은퇴했다.

언젠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갈릴리호수 연안을 둘러싼 풍경을 보며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어느 지점에 주님의 발과 시선도 닿아있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 모든 현상이 정말 소중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만났던 당시 사람들이 부러웠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변화되었다. 그분에게 있는 생명과 치유, 회복과 소망의 능력이 그대로 전이되면서 삶에 혁명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 확진자나 의심환자를 추적하느라 관계된 사람들의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짧은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모든 만남과 흔적은 의미가 있다. 물론 그 만남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정재봉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주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묻어난다. 그래서 그 만남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통해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내성과 면역력을 간직해야겠다. 그분에게 있는 소망과 비전, 생명과 진리를 전달하는 영적 수퍼전파자가 되어야겠다.

미니 러브소나타 ‘재회’

러브소나타 교토 후속 프로그램 개최



미니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 모습.

지난 4월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는 끝났지만 교토 교계의 연합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재일대한 교토교회에서 의미 있는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러브소나타 교토

실행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개최한 ‘미니 러브소나타’가 바로 그것이다. 러브소나타 교토 협력교회에서 약 200명이 참석했다.

미니 러브소나타는 ‘재회’를 주제로 열렸다.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에서 결신한 사람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교토 교계의 부흥을 간구하는 자리였다.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초청해 전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러브소나타 메인 통역사인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도쿄 그리스도선교회)가 메시지를 전했다. 테너 배재철의 매너저와 지마 토타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현지 음악인들도 출연해 간증과 아름다운 찬양연주를 선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참석자 간증

그때,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천년 고도 교토 794년부터 1868년까지 무려 천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수도였다. 지역 특성상 도시 하나가 온통 문화재라고 할 만큼 역사적인 곳이다. 그런 탓에 이곳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인 만큼 수많은 사람과 신사가 밀집해 있고, 매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교토에 러브소나타 전도집회가 열린 것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토 교회들이 그때의 감격을 잊지 않고 재현했다. 교토에서 두 번째 러브소나타가 열렸다. 큰 의미가 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진 재일대한 교토교회의 200석이 넘는 자리가 초청자들로 꽉 찼다. 한마디로 감동과 은혜의 도가니였다. 우리는 교토에서 열린 두 번째 러브소나타를 통해 재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경험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강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란다.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 교토 러브소나타에서 결신한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아무 탈 없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 조수정 선교사(교토 온누리교회)

하반기 공동체별 주차봉사 구역 발표

서빙고 주차사업팀이 2015년 하반기 공동체별 주차봉사 구역을 발표했다. 하반기 주차봉사를 맡은 공동체(참고)는 서빙고, 용산, 신용산, 한강, 광명, 동작, 양천, 여의도, 영등포구로, 이수, 고양은평, 마포, 중종로다. 공동체별로 10명 이상이 반드시 섬겨야 한다. 공동체 목사(장로)가 인솔해야 한다. 교대시간

을 엄수하고, 참여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차사업팀은 “공동체별 주차봉사자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차사업팀은 7월 1일 수요일에 배에서 예배섬김팀과 같이 헌신예배를 드린다.

/ 김현준 기자

지역교회 섬기는 ‘대전 일대일 대외협력팀’

용전교회 리더십 11명 일대일 동반자 과정 수료

지난 14일 대전 온누리교회 일대일 대외협력팀이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 대전시 중리동에 위치한 용전교회(담임목사 권석은) 리더십 1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1주 동안 실시한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마치고 수료예배를 드린 것.

이날 수료예배에서 용전교회 권석은 목사는 대전 온누리교회 일대일 대외협력팀의 헌신에 감사인사를 했다. 권 목사는 “앞으로 제자양육에 앞장서

는 교회, 다른 교회에 일대일 양육자를 파견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대전 온누리교회 일대일 대외협력팀은 용전교회 외에도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다. 지난 1월과 6월에 충북 청주시 사당동에 있는 청주 우리사랑교회 리더십 1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대전 서부제일교회에서도 2기 동반자 과정을 섬기고 있다.

2015 하반기 공동체 주차봉사 시간 및 지역

봉사지역 봉사시간	동작지역, 한솔주차장	금강병원 반도아파트	강북삼거리 신동아주차장	교회 정문, 교차로, 횡단보도
3시간	서빙고(06:00~09:00)	-	-	-
3시간	용산(09:00~12:00)	중종로(08:00~11:00)	고양은평(08:00~11:00)	동작(08:00~11:00)
3시간	영등포구로(12:00~15:00)	여의도(11:00~14:00)	광명(11:00~14:00)	신용산(11:00~14:00)
3시간	양천(15:00~18:00)	-	-	한강(14:00~17:00)
3시간	마포(18:00~21:00)	-	-	이수(17:00~20:00)

* 참고: 주차상황에 따라 모든 공동체 봉사자는 주차사업팀원의 협조 요청에 우선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 2015년 상반기 공동체 종강예배 일정 ■

서빙고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6월 23일(화)	관악금천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3일(화)	동작	한동홀	오후 6시
6월 23일(화)	이촌	비전홀	오후 6시
6월 23일(화)	서빙고	시온홀	오후 6시
6월 25일(목)	강서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5일(목)	가정사역	한동홀	오후 6시
6월 26일(금)	성동광진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26일(금)	한강	한동홀	오후 6시
6월 26일(금)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6월 26일(금)	마포	시온홀	오후 6시
6월 28일(주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오후 5시
6월 29일(월)	여의도	민음홀	오후 7시
6월 30일(화)	중종로	두란노홀	오후 6시
6월 30일(화)	용산	한동홀	오후 6시
6월 30일(화)	신용산	비전홀	오후 6시
6월 30일(화)	강촌	시온홀	오후 6시
7월 2일(목)	OCC	두란노홀	오후 6시
7월 2일(목)	특초	한동홀	오후 6시
7월 2일(목)	동대문중앙	비전홀	오후 6시
7월 2일(목)	광명	광명은광교회	오후 7시
7월 2일(목)	노원	상현교회	오후 7시
7월 3일(금)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오후 6시
7월 3일(금)	김포	한동홀	오후 6시
7월 3일(금)	서대문	시온홀	오후 6시
7월 5일(주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오후 4시
7월 7일(화)	성북	두란노홀	오후 6시
7월 7일(화)	이수	시온홀	오후 6시
7월 10일(금)	찬양	한동홀	오후 6시
7월 11~12일(토, 일)	고양은평	강화성산예수마을	미정

양재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6월 23일(화)	서초B	화평홀	오후 7시30분
6월 23일(화)	송파 동창팀(사랑, 온유다락방)	JDS홀	오후 7시30분
6월 24일(수)	강남B	화평홀	오후 8시
6월 24일(수)	서초A	온유홀	오후 7시
6월 24일(수)	분당A	드림홀	오후 6시
6월 25일(목)	송파 광암리팀(소망, 마리아, 낮은다락방)	도곡 온유홀	오후 7시30분
6월 25일(목)	산본안산	드림홀	오후 8시
6월 30일(화)	강남A	온유홀	오후 7시
6월 30일(화)	양재	화평홀	오후 7시
6월 30일(화)	송파 내촌팀(충성, 양선다락방)	JDS홀	오후 7시30분
7월 1일(수)	서초C	화평홀	오후 7시
7월 2일(목)	과천의왕	드림홀	오후 6시30분
7월 2일(목)	송파 풍암팀(화평, 희락다락방)	도곡 온유홀	오후 7시30분
7월 3일(금)	강남D	화평홀	오후 8시
7월 3일(금)	서초D	드림홀	오후 6시30분
7월 3일(금)	Point5	도곡 온유홀	오후 8시
7월 15일(수)	안양평촌	기쁨홀	오후 8시
미정	분당B	다락방별 진행	미정
미정	푸른누리	연기	미정
캠퍼스			
6월 26일(금)	부천 소망공동체	드림홀	오후 7시
6월 26일(금)	부천 화평공동체	예꿈홀	오후 7시
6월 26일(금)	수원 남누리	경찬홀	오후 7시
6월 26일(금)	수원 북누리	비전홀	오후 7시
6월 26일(금)	남양주 A공동체	본당	오후 7시 30분
6월 26일(금)	남양주 C공동체 진접	미정	미정
6월 26일(금)	강동 B공동체	12층 본당	오후 7시
6월 27일(토)	남양주 C공동체 별내	미정	미정
7월 2일(목)	강동 A공동체	11층 두란노홀	오후 7시
7월 3일(일)	대전 캠퍼스	본당	오후 7시 30분
7월 5일(일)	양지 캠퍼스	박모세홀	오후 2시

* 부천 믿음, 사랑, 희락 공동체는 순 별 진행, 평택 캠퍼스 순 별 진행

‘살롬 예루살렘 대회’ 22일부터 25일까지

키리가 ‘살롬 예루살렘 대회’를 개최한다.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과 뉴욕 유대인 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살롬 예루살렘 대회는 오전은 이스라엘 세미나, 오후는 살롬 공연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일본과 중국의 목사들과 성도들도 참석한다.

동방의 세 나라가 함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위로한다.

문의: 02-792-7075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이기진 목사반

권은경	김화순	오현선	조민
김순명	남영우	윤경숙	주선미
김영숙	박윤	이숙희	최경아
김영은	박희숙	이은주	최정은
김용주	손인숙	이정은	홍우현
김재남	양현진	이혜정	황윤주
김주영	엄은자	이혜화	
김혜정	오민석	정종철	

제1054호 | 2015년 6월 21일(주일)

■ 프리덤스쿨 수료 간증



/ 최정미 성도

내 생일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날

어려서부터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두려움과 불안, 우울증은 좀처럼 치유되지 않았다. '하나님, 예수? 웃기고 있네!' 내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 나에게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창조주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이 가득했다. 나는 33살이 되어서 교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1년 후 내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왔다. 이후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집사 직분도 얻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여겨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사나 교사로서의 모습과 아내나 엄마로서의 모습이 대조적이었다. 이중적인 내 모습이 부끄럽고, 죄스럽고,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교회를 다니고 집사도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죄를 용서하지 않고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은 남편과 딸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 어느 순간 나는 딸에게 죽도록 미운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둠을 떨쳐내고 싶었다. 직장 동료가 프리덤스쿨을 권유했다. 절실한 마음으로 신청했다.

프리덤스쿨에 참가하면서 참 많이 운 것 같다. 어떻게 오게 되었냐는 질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울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첫 강의를 듣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에도, 찬양을 부르다가도, 조장님과 부조장님을 통해 기도

를 받으면서도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다.

프리덤스쿨을 통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을 거쳐 아버지 나이 60세에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였다. 이들을 낳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 부인이 내 엄마다. 엄마는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낳았다. 어렵게 얻은 아들인 오빠는 천상 천하 유아독존으로 컸다. 막내였던 나는 오빠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오빠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나에게 풀었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이들을 낳았으면 됐지 왜 나까지 낳아서 고통과 폭력 속에서 자라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생일이 정말 싫었고, 내 존재 자체를 거부했다. 달력에서 도려내고 싶을 정도였다.

프리덤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일이 축복의 날임을 알게 됐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일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라고 했다. 그 말에 내 귀가 번쩍 뜨였다. 내 생일은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며,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다.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아픔과 슬픔을 직면할 수 있었다. 프리덤스쿨을 통해 나는 조금씩 치유되었고, 우리 가족 또한 회복되고 있다.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 준 프리덤스쿨과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 북한선교학교 수료 간증



/ 안양오 성도

어서 복음통일이 되기를

북한선교학교에서 휴전선 탐방을 갔다. 나는 자유로를 타고 임진각으로 바로 향했다. 북한선교학교 수업의 연장선이라는 마음보다 이른 아침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 정취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다.

임진각에 도착해 일행과 조우한 나는 첫 방문지인 도라산 전망대로 향했다. 도라산 전망대는 서부전선의 최북단 전망대다. 서울과 직선거리로 60km밖에 안 되는 곳이다. 전망대 앞이 DMZ(비무장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철조망이 있다. 그 철조망 건너 저 멀리에 개성공단과 개성시가 한 눈에 들어왔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었다.

나는 58년을 살면서 DMZ에 처음 가봤다. 남과 북의 경치와 풍경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였다. 정다운 모습이었다. 철조망 사이에 있을 뿐이었다. 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 어쩌서 고난과 우상의 최면에 걸린 어둠의 땅이 되었는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퍼부으며 복잡한 마음으로 도라산역으로 향했다.

기차는 도라산역에서 막혀 있었다. 더 이상 갈 수 없다. 기차길이 끊겨서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끊어졌기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 주세요. 북한이 복음의 땅으로 회복되도록, 복음을 들고 대륙 너머 넓은 세상을 향해가는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행선지인 제3땅굴로 향했다. 땅굴은 생각했던 것보다 커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땅굴로 한 시간 안에 중무장한 병력 3만 명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땅굴은 대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었다. 그 땅굴을 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작업했을까. 연민의 감정이 물려왔다. 자신의 아픔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김일성 일가의 주체사상과 집단들로 인해 언제까지 북한 동포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지 속상했다. 하루 속히 그 땅이 회복되어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했다.

이 날의 마지막 행선지인 통일촌교회로 향했다. 아담하고 예쁜 교회였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했다. 아서 복음통일이 되기를 기도했다. 남한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우리 세대에서 북한의 믿음의 형제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문현구 피택장로

아내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 참가하기 싫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세웠고, 내가 세운 가정은 내 소유라고 생각했다. 우리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지고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던 말인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무슨 운동경기라도 된단 말인가? 무슨 훈련이 필요하단 말인가? 지금도 나는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지 않은가?

아내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두 아들을 대학원까지 교육시켰다. 나쁜 양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착각했다. 내가 똑똑하고 탁월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아내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구하기 시작했다.

나의 이러한 변화들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나와 아내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다. 아내와 내가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가정에서 그 나라가 실현되고, 드러나고, 세워지기를 원하셨다.

나는 아내를 더 이해하고 돕는 남편이 되기로 결단했다. 나의 옛 사람과 아내의 옛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은 성도로서 거듭날 것을 결단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

앞으로 비판과 판단을 멈추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축복의 길을 갈 것이다.

나만 먼저 가지 않고, 어깨동무하고 가고, 때로는 업어주고, 업혀서, 서로 밀어주고 잡아당겨주는 동역(同役)의 길을 갈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길을 가련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영으로 내 영을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우리교회에서도 일대일
제자양육 할 겁니다”

/ A 목사(T국)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해 보았다. 여러 방법 중에 일대일 제자양육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 교회에 적용하기에 적합하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양육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곳은 교회등록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교회도 이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강제로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 몰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하나님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를 알려 달라고 기도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기도하던 중에 어느 선교사님이 일대일 제자양육 책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공부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주셨다. 서울을 방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직접 일대일 제자양육을 공부할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배우고 익혀 우리 교회에 적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확신이 들었다.

양육자님이 가르치는 방법과 나눔, 간증, 겸손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큐티 과목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큐티를 하고, 지역에서 순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양육자님 집에서 드리는 순예배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내 눈으로 순예배 드리는 장면을 직접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순예배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고, 은혜로운 예배였다. 성도들이 간증을 나누는 모습도 정말 좋았다. 그 순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순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상상해 봤다. 전율이 느껴졌다.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배우면서 목양이 한결 쉬워진 것 같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는 것 같다. 성도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교재를 이곳 언어로 번역하고 싶은 소망도 생겼다.



장로칼럼 김형중 장로(세례 담당, 도서관사역팀)

텍스트(text)와 컨텍스트(context)

책을 읽을 때 텍스트(text)를 열심히 읽으면 내용까지 충실히 이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컨텍스트(context)는 본문 내용에 나온 문맥과 배경을 모르고서는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잘 아는 논어에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라는 표현이 나온다. 두 문장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아해 공자는 친구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주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공자는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자기 뜻을 깨끗하게 밀고 나가는 지조 있는 양반이었구나!”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공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논어가 쓰인 환경을 이해하면 다른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문장의 ‘벗’은 친구가 아닌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학문적, 정치적 동지를 말한다.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사람이었던 공자는 패도정치가 난무하는 시대에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공자가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천하를 돌아다닌 ‘주유전하(周遊天下)’의 이면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푸대접했던 엄혹한 시대적 배경과 고단한 삶이 녹아있다. 공자는 그만큼 외로웠다. 이처럼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본문만 읽으면 낭패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받은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문맥을 모르면 당혹스러워진다. 영화처럼 시각적으로 계시 받은 환상을 문자로 옮겨 놓다보니 이해하기 더 어려워진다. 계시록에서 각종 상징의 의미를 모르면 잘못 이해하게 된다. 일곱 금촛대, 일곱 별, 날선 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열왕기에 나온 선지자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폭정을 피해 도망간다. 아합 왕궁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왕국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한달음에 달아났다.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로렘나무 아래 숨어 있었다. 왕상 19:4절을 ‘로렘나무’에 대한 지식 없이 성경 본문만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 엘리야는 크고 풍성한 잎이 달린 시원한 그늘 아래서 폭 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로렘나무는 가시덤불이나 마찬가지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열악한 환경을 상징한 가시덤불 아래에서 죽기를 기다렸을까. 그런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그런데 로렘나무에 대한 잘못된 배경지식으로 로렘의 집, 병원 등의 이름을 짓는다. 로렘나무 그늘을 편안한 안식처 정도로 오해한 데서 벌어진 오류다.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차이를 말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문학, 과학사적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다. 우리 삶의 기반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엄선된 교양사적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며,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 독서를 하자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룩해야 한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성숙한 지성인이어야 한다.



권사칼럼 양원경 권사(강남B공동체)

나는 러빙핸드가 좋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릴 적부터 기독교인의 문화와 환경이 몸에 배어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인일함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아의 껍질을 깨는 고통을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나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하시면서 새로운 복음의 깨우침을 얻게 하셨다.

고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철학과 설교는 내 삶에 도전을 주었다. 성도 각자에게 항상 숙제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셨다. 하 목사님은 다정하고, 온화한 카리스마를 가지셨다. 신앙생활이 해가 거듭될수록 기대가 되었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갈급함이 솟구쳤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앞도려 아하며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깨닫고, 날마다 화가기도를 드렸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내가 속한 순에서도 두 가정이 선교지로 떠났다. 나는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기도편지를 읽고, 정리하며 후방지역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1999년 8월부터 한강아남지역 성도들을 위해 햇불선교회관을 양재 온누리교회로 사용하게 되었다. 10년 넘게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다니다가 새 성전이 생기니 정말 할 일이 많았다.

몇몇 집사님 부부와 함께 양재 러빙핸드를 조직하는데 참여했다. 안내와 청소 등을 맡아 교회 구역구역을 돌봤다.

사랑할 내부와 화상실, 복도, 교회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주일봉사를 시작했다.

지금은 팀장을 비롯해 40명의 성도가 자발적으로 교회 곳곳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있다. 화합이 잘 되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귀하고 신실하게 여길 것이다.

나는 러빙핸드가 좋다. 러빙핸드는 연령층도 다양하다. 30대부터 70대까지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부모님을 따라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간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과차 사랑하라”(벧전 1:22).

이 말씀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땀 흘리며 청소를 한다. 마치고 마음의 때를 씻기는 느낌을 받으면서 말이다.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 속에 있던 러빙핸드 식구들이 생각한다.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문제를 극복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시간을 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 일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사회선교 하나원사역)

지난주 하나원사역으로 알게 된 탈북자 자매와 함께 음악회에 갔다. 단 둘이 가기 그래서 나는 딸 아이를, 그 자매는 옆집 사는 다른 탈북자를 데려왔다. 사실 나는 음악회에 별 흥미가 없다. 이것도 사역이려니 하고 내키지 않아하는 딸을 겨우 설득해 음악회에 갔다. 음악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같이 간 탈북자 자매 2명이 사라져 버렸다. 음악회가 재미없었나 싶어 로비로 찾으러 나갔는데 문자가 왔다.

“목사님, 언니가 집에 손님이었다고 급히 가야 한데요. 저도 함께 갈게요.”

정말 당황스러웠다. 나는 탈북자 지체를 섬길 요량으로 음악회 끝나고 그들을 데리고 갈 유명한 평양냉면집도 잡아놨었다. 그런데 음악회가 재미없다고 도중에 나가버릴 줄이야. 결국 평양냉면은 딸과 함께 먹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내가 너무 한국식으로 밀어붙인 것일까? 내가 인사를 잘 안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배신감이 올라왔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며칠 전 북한사역 서밋에 참석했다. 나는 선택강의 중 허버드 대학원의 조세핀 김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그 교수님은 자신의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상만 쓰는 한 아이를 상담하기 위해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만나주지 않아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그 아이와 상담하기 위해 계속 찾아가던 어느 날 그 아이 스스로 교수님을 찾아와 울면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 교수님이 아이에게 물었다고 한다.

“그토록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던 네가 어째서 나를 스스로 찾아왔니?”

그러자 그 아이가 “당신은 항상 나를 믿어주잖아요(You always came back!)”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을 끊임없이 찾아와 준 교수님에게 신뢰가 쌓인 것이다.

탈북사역의 핵심은 지속성이다. 아무리 상처받고,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친구가 될 수 있다. 한두 번 이벤트로 친구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다. 탈북사역이란 결국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내의 사역이다. 이를 어떻게 감당할까 자신이 없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탈북자사역의 해답을 찾았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낯선 사람으로 사는 지극히 작은 탈북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해답을.

이 말씀은 아마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태도로 살면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주셨는지 모른다. 그런데 더 생각해보면 탈북자사역은 너무 어려워.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여기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만 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 받고, 배신을 당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고, 꾸준히 낯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북자사역은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위선이 되거나, 상처만 남는 사역이 될 수 있다.

탈북자사역은 단순히 돕는 사역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사역이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여겨야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사림의 조건

하나님은 빛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빛은 거룩이고, 사랑은 은혜입니다. 요한일서는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가질 때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우리는 자기만족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위선에 빠집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있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공의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설명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우리는 계속 거짓말하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죄가 없고, 문제도 없다면서 우리의 상태를 왜곡하고 포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기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9절).

빛은 언제나 어둠에 숨겨진 것들을 들춰냅니다. 들춰진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림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자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문을 다 여는 것과 조금 여는 것은 다릅니다.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는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오도록 문을 열 때 온전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가 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엄청난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주후 400년에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는 주후 306년에 히포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자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들추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을 끌어내기 위해서 과거를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참회록을 쓴 것은 바로 그 시절

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변호하지 않고 참회록을 썼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회심할 때까지 자신의 모든 죄를 낱알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훌륭한 점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대단한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들 중에 자신에 대한 고백이 종종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의 여정을 보낼 때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시기에 나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환경직 목사님은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 상’을 받고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를 회개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80세 생일 때 후배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높이치 마십시오.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림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함과 부패한 본성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회개할 것이 많아지고, 고백할 것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자백으로 모든 것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고백과 반복적인 자백으로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림의 조건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백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14 : ‘하늘의 창’이 된 나병 환자들

지난주 살펴 본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다. 열왕기하에는 또 다른 나병 환자들이 등장한다. 6-7장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포위한다. 오랫동안 계속된 포위 작전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죽게 됐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삶아 먹는 끔찍한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기가막힌 현실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 그를 저주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비극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때 엘리사의 예언을 들은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믿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한들 이런 비참한 기근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불신과 적대감의 표현이다.

여기서 장관이 사용한 ‘하늘의 창’이란 표현은 구약에서 두 차례 더 쓰인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하늘의 창’을 열어 엄청난 양의 비를 땅에 쏟아 부으셔서 심판하셨다(창 7:11). 또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십일조를 드릴 때 주실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창고에 십일조 전채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 붓지 않나 보라”(말 3:10). 왕의 신하는 ‘하늘 창’을 여시고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에 엘리사가 이렇게 응수한다. “네가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왕하 7:2).

엘리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도 단 하루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의 기근을 해결하셨나? 마치 예나메

이션에서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음식을 투하해 주셨나?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나?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네 사람을 당신의 ‘하늘의 창’으로 사용하셨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나병 환자네 사람이 있었다. 이들도 배고파 죽을 지경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들은 굶어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칼에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니 혹 항복하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죽이지 않고 먹을 것을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다.

아람 군대는 나병 환자네 사람(히브리어 ‘페조라임’)이 오는 소리를 마치 이스라엘과 헷과 이집트 연합군대(히브리어 ‘미쯔라임’)가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 마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나팔소리와 함아리를 부는 소리, 함성을 통해 적들을 정신없게 만들어 자중지란에 빠져 자멸하도록 만든 것과 유사하다. 나병 환자네 사람이 가보니 이미 아람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떠나고, 그들이 머물던 진영에는 음식과 은과 금과 의복들이 널려 있었다. 이들은 마치 대승을 거둔 군인처럼 전리품을 취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끼리 독차지하지 않는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자기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이들을 외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외면당한 이들은 자신들을 외면했던 저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성문지기에게 전하고, 결국 성 안에 있던 자들이 다 나와 일거에 배고픔을 해결한다. 하나님은 천사라는 나병 환자들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환자들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성경은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주목한다. 그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다. 그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누가복음에서 ‘~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예수님을 통해 이뤄지는 치유와 회복을 보는 축복을 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자 모든 사람들이 거부한 ‘나병 환자’였다. 네 명의 나병 환자들과 달리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한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다. 엘리사의 말대로 이뤄진 것이다. 장관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창을 여시고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지 못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보란 듯이 그 장관에게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 단 하루만에 기근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현장을 보았다. 그러나 축복의 현실을 바로 눈앞에서 봤지만 참여하진 못했다. 불신 때문이었다. 우리에게도 엘리사의 기도가 필요하다.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온 아람 군대를 보며 두려워했던 그의 사환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각박하고 메마른 현실을 넘어 오늘날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공급해주심을 믿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